

동국대 기부금 유치  
전화모금 서포터즈 가동

동국대(총장 홍기삼)가 동문들의 기부금 유치를 위해 대규모 전화모금 서포터즈를 조직했다.

동국대는 "최근 전개하고 있는 '후배사랑 등록금 한 번 더 내기 운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학생, 교직원 100여명으로 구성된 기부금 유치 서포터즈가 6월 27일부터 30일까지(1차), 7월 11일부터 12일까지(2차) 동국대 중앙당에서 약 5만명의 동문들을 대상으로 전화 모금 캠페인에 나선다"고 6월 26일 밝혔다.

동국대 '후배사랑 등록금 한 번 더 내기 운동'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기부운동으로, 학부 등록금만큼의 금액을 동문들로부터 월 3만원\*100회(300만원) 또는 월 5만원\*60회(300만원) 등의 소액 월정 기부로 받는 것이다.

남동우 기자

불교방송 이성언 사장 사표

불교방송 이성언 사장이 6월 2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7월 31일자 사직란 이성언 사장은 지난해 11월 경인방송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CBS 등과 함께 "종교방송사들은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사업자 공모에 함께 힘을 합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동명의 성명서에 이사회 동의없이 날인하는 등 불의를 빚어왔다.

후임 사장은 대한불교진흥원에서 사장 후보 추천 또는 공채 등을 결정하는 대로 이사회를 거쳐 선임될 전망이다.

강지연 기자

5·31 지방선거 투표소  
개신교 974·불교 9

5·31 동시지방선거 투표소 가운데 불교시설은 9곳인 반면, 개신교 시설은 974곳에 달해 불교시설 보다 108배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톨릭시설도 88곳으로 불교보다 10배에 달했다. 이는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수록된 각 지역 투표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지역별 종교시설 이용현황을 보면, 서울은 투표소 2210곳 가운데 505곳(22.8%)이 종교시설을 이용해 가장 이용률이 높았다. 인천도 582곳 가운데 70곳이 종교시설에서 실시돼 12%에 달했다. 반면 제주도는 투표소 229곳 가운데 단 1곳(0.4%)만 종교시설을 이용했다.

종교평화위원회는 "법률에 따른 투표소 장소 선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봉영 기자

파라미타, 지부 역량따라 '희비'

학생·지도자 체계적 관리시 회원 급증  
"교사불자·주지스님 지도자 역할말아야"

6월 21일 조계종이 발표한 '2005년 통계자료'에서 파라미타청소년 협회(이하 파라미타) 회원 감소는 청소년 포교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구체적인 변화 양상을 살펴 보면 청소년 포교의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통계자료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자료에 따르면 파라미타 전체 학생 회원은 1만4068명에서 1만3775명으로 293명(2.1%) 감소했다.

지도자 회원 또한 471명에서 431명으로 40명(8.5%) 줄었으며, 분회는 306개에서 276개로, 지회는 21개에서 17개로 4개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경상북도의 경우 학생회원수가 450명에서 1365명으로 915명이나 증가했다.

분회가 12개에서 8개로 4개나 줄었지만 회원 수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경북지부 차원에서 학생과 지도자 회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이다.

며 회원 활동을 지원했던 것이 큰 힘이 된 것이다.

지부활동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면서 학교와 사찰 분회 회원이 다소 늘어난 것이 '폭발적' 증가의 또 다른 원인이다.

경상남도의 경우에도 2004년 360명에서 2005년 212명으로 학생회원이 줄어들었지만 지난 6월 3일 지부가 창립되면서 회원수가 1000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내년의 통계 발표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강원도(46→82)와 인천(26→47), 충남(0→29) 역시 지도자가 소폭 증가하면서 학생회원수가 증가한 경우다.

불교세가 비교적 약한 전라북도의 파라미타 활동도 주목할 만하다. 학생(870→870)과 지도자(43→48) 회원 숫자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지역 대표사찰인 김제 금산사가 지도자와 학생 회원들의 활동 공간을 마련해주고 템플스테이 등의 프로그램까지 제공하면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학생회원이 1200명에서 360명으로 840명이나 줄은 경기도는 부천 석왕사에 있는 지부운영이 사실상 '정지'되면서 학교와 사찰회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했다.

또 25명이던 지도자가 19명으로 줄어든 것도 활동 저하의 한 이유다. 서울(3200→3100)과 부산(2430→2100)은 '전략적 요충지'임에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렇게 볼 때 청소년 포교의 대안은 지역 교구본사가 구심점 역할을 하는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제공하며, 실질적 임무를 주관하는 파라미타는 체계적인 회원관리와 함께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파라미타 조한관 사무과장은 "특히 교사불자들과 지역 사찰 주지스님들이 지도자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단 차원에서 어린이-청소년-대학생-청년으로 이어지는 포교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철주 기자

"헌혈증 333장 이웃에게"

광동고 학생들이, 생명나눔본부에 전달



"부처님은 우리에게 '보시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셨죠. 어려운 분들에게 작지만 구체적인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이웃이 되고 싶었어요."

불교 종합학교 고등학생들의 '이웃사랑'이 뜨겁다. 6월 28일, 남양주 광동고등학교 총학생회장 이선(19)양과 불교학생회장 박근식(19)군이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무실을 찾아 봉투를 전달했다(사진). 봉투 속에는 34만 원과 헌혈증 333장이 들어있었다.

이들은 "학생들이 기증한 헌혈증과 성금을 소중한 곳에 써 달라"고 부탁했다.

광동고 학생들이 헌혈증과 성금을 모으기 시작한 것은 지난 5월 4일, 봉축기념행사 이후다. 부처님오신날을 기리기 위해 매년 열리는 교내 봉축기념행사에서, 광동고 학생들은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마음으로 바자회를 열어 생활용품 판매한 수익금을 모으고 '자비의 헌혈'을 실시했다. 행사 종료 후 바자회 수익금 33만 5천원은 전액 광동고 인근의 선재동자원에 전달했다.

또 '자비의 헌혈'에는 신대식 교장과 교직원들도 참여해 모범을 보였으며, 헌혈 종료 후에는 헌혈증기부의 필요성도 교육하며 학생들이 '나눔'을 실천하도록 격려했다. 처음에는 헌혈증을 수첩 속에 끼워 갖고 다니며 자랑하던 학생들도,



"혈액이 비싸서 정작 수혈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도 있으며, 헌혈증을 기부하면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을 듣고 한 장 두 장 헌혈증을 기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차곡차곡 모인 헌혈증이 333장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봉축 기간 동안 광동고 불교학생회 회원들 연등을 판매한 수익금 34만 원도 생명나눔실천본부에 함께 전달했다.

광동고 불교학생회 지도봉사 회장 스님은 "막연한 종교교육보다도 보시를 실천하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부처님 교육"이라고 밝혔다.

이은비 기자

여름방학 자원봉사로 보람있게

여름방학이 다가왔다. 현재 중학생은 연간 18~20시간 이상, 고교생은 연간 2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기에는 여름방학이 적기. 그러나 막

상 어떤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할 지 막막한 청소년이라면,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준비한 불교계 복지관으로 눈을 돌려볼 만하다.

이은비 기자

■ 불교계 복지관 여름방학 봉사활동 프로그램

기관	날짜	대상	연락처
서울 구로종합사회복지관	7월중	장애·비장애학교	(02)852-0522
공동종합사회복지관	7월 24~28일 8월 5~6일	청소년 레인보우 자원봉사학교	(02)2613-9367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8월 1~3일	자원봉사학교	(02)3494-4755-6
목동청소년수련관	7월 22일~8월 19일	포레상담자 동아리 활동	(02)2642-1318
분당종합사회복지관	7월 26~27일	부엌이 캠프	(02)817-8052
삼전종합사회복지관	7~8월	자원봉사학교	(02)421-6077
육수종합사회복지관	7~8월	종합봉사활동	(02)2282-1100
은행노인종합복지관	7월 24일~8월 25일	자원봉사학교	(02)385-1351
군포장애인종합복지관	8월 16~18일	장애·비장애 청소년이 함께 하는 자원봉사캠프	(031)396-3108
한솔종합사회복지관	7월 24일~8월 18일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031)716-4215
부천 원종종합사회복지관	7월 25~26일	농촌체험캠프	(032)677-0107
원주 명륜종합사회복지관	7월 24일~8월 13일	청소년봉사활동	(033)762-8131
부산 낙동종합사회복지관	7월 19~21일	종합봉사활동	(051)271-0560
부산 물온종합사회복지관	7월 24일~8월 19일	하루같이 봉사단	(051)264-9033
대구 남구종합사회복지관	7월 25일~8월 29일	직접기회	(053)476-7700
구미 금오종합사회복지관	7~8월중	장애체험 자원봉사캠프	(054)458-0230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	7월 24일~8월 4일	장애·비장애 학교	(054)776-7522
구미 금오종합사회복지관	7월	직접기회	(054)458-0230
영주장애인종합복지관	8월	장애·비장애 학교	(054)633-6415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8월	장애·비장애 청소년캠프	(055)763-6677-80
여수 문수종합사회복지관	9월	청소년봉사활동	(061)652-4242-3
광주 광산장애인복지관	7월	장애·비장애 학교	(062)943-0420

조선왕조실록 월정사로 올까?

불교계·서울대·정부 관계자 비공개 간담회

7월 14일 도쿄대로부터 서울대로 반환되는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의 소장문제를 놓고 불교계와 서울대의 한판 승부가 불가피할 예정이다.

조선왕조실록환수위원회(공공대표 정년·철안)와 서울대실록환수위원회(위원장 이태수·문화재청 유홍준·정장,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6월 27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관계자들은 <조선왕조실록> 반환이 불교계의 노력에 일구어낸 성과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으며, 국보급 문화재인 실록이 원대 보관돼 있던 월정사 사고로 환수되기 위한 방안, 실록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환수될 실록의 활용과 보존에 대해서는 다각적이고 치밀한 검토와 준비를 거쳐

추진돼야 될 것이며 실록의 환수와 활용에 양측 환수위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실록되찾기국회의원도인(공공대표 김원웅·노회찬 외 3명)도 6월 29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긴급회의를 거쳐 '실록 소장'에 대한 적합성 판단'이라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문화재청에 제출했다.

한편 조계종 승랍 30년 이상 연령 55세 이상 스님 170여명은 6월 22~23일 도쿄 한국증권연수원에서 열린 중진주지연수에서 결의문을 통해 "정부와 문화재청은 국고로 투입해 오대산 사고본 복원한 취지에 맞게 조선왕조실록이 원 소장처인 오대산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대산 사고본 반환을 기념하기 위한 고불식이 월정사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남동우·노병철 기자

능인선원 YBA  
파키스탄서 구호활동

서울 능인선원이 파키스탄 지진 피해 지역에 구호활동을 떠난다.

능인선원 부설 YBA(Young Buddha Association, 총재 지광)는 7월 8일부터 17일까지 지진 최대피해 지역인 발라코를 방문해 초등학교 개원과 함께 여름캠프, 의료 봉사, 정화조 설치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친다.

먼저 YBA는 올 2월 파키스탄 국가인간개발위원회(N.C.H.D)와 체결한 '글로벌 호프 학교' 2곳 설립 지원체계에 따라, 100명 규모의 여자초등학교를 건립한다. 건물 3동이 들어서는 여자초등학교 건립에 YBA는 이미 미화 1만3천 달러를 지원했으며, 이에 앞서 150명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남자초등학교 1곳의 설립도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현지에서 구호단 활동을 벌인 YBA의 이번 방문에서는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물탱크를 설치하는 등 지역개발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YBA는 대학생 자원봉사단 및 의료진료단 10여 명을 구성할 계획이다.

YBA 지도봉사단장 스님은 "제3세계 지원활동을 국제화 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사업인 만큼 한국 청년봉사자들의 봉사정신을 아끼없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일산경찰서, 황룡사 前 주지 정모씨에 구속영장 신청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6월 29일 신도들에게 가짜 만병통치약을 판사기 혐의로 등으로 고양시 일산동 황룡사 前 주지 정모씨(42)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무덤을 파내고 주검 밑에 고인 물을 퍼낸 뒤 신도인 김씨 등 5명에게 만병통치약이라며 1잔당 5만~60만원씩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물을 마신 피해자들은 식중독과 피부병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정씨는 또 속옷에 차고 다니면 모든 일이 잘 풀리는 부적이라며 가짜 여우꼬리를 100만~300만원에 판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런 수법으로 정씨는 지금까지 15명의 신도들한테서 2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무속인으로 활동해오다 지난 2002년 태고종에서 정식 승려증을 받고 2002년부터 황룡사 주지를 맡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태고종은 정모씨를 지난 6월 7일 사찰 등록을 취소하고 승직을 박탈한 바 있다. 김주일 기자

이 책을 읽지 않고 간화선을 논하지 말라

여기 한 권의 책 속에 간화선의 진면목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미래명망의 대안으로 떠오른 선법, 그 선의 정수이며 최고 수행법이 바로 간화선이다. 지리산 벽송사 벽송선원에서 정진중인 월암스님이 간화선의 역사와 사상 그리고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간화선의 지침서를 출간하였다. 간화선에 대한 올바른 이론과 실참을 지향하는 수행자의 삶이 선 수행의 올바른 길임을 제시해 준다. 저자는 간화정로가 한국불자들의 필독서가 되고 선원수좌들의 애독서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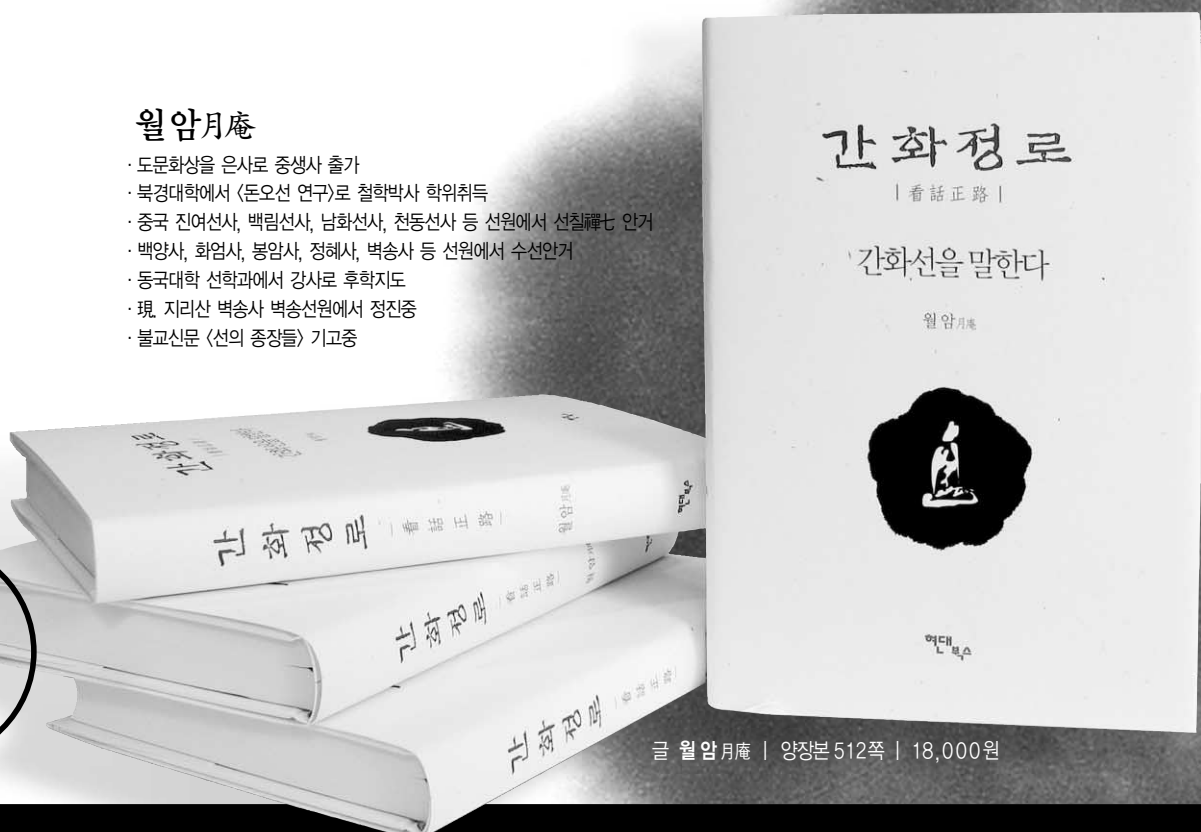
그동안 글로벌 시대에 우리 간화선이 우수하다고 자처하면서도 세계에 알려지지 못한 지침서가 부족했다면 간화정로는 선의 정체성을 알리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설정스님(덕송총림 수좌)]

월암스님은 제법선원에서 수행 정진하면서 간화정로를 집필하였습니다. 이제 이 책이 스님, 재가, 해외불자들에게 선수행의 지침서가 되어 눈 밝은 남자가 무수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진스님(전국 선원수좌회 의장)]

간화선이 수행법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롯이 수행을 일관하신 분들은 근거를 제시하여 설명하기 어렵고, 불교 학자들은 실참이 부족하여 그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워 정확한 간화선을 알리기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수행과 학적 실 근거를 겸한 간화정로는 이 시대에 필요한 간화선 지침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산스님(중앙승가대학 교수)]

看話正路  
간화정로

출판 한달만에  
2쇄 돌입



월암月庵

- 도원화상을 은사로 중생사 출가
- 북경대학에서 <토오선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취득
- 중국 전역선사, 백림선사, 남화선사, 천동선사 등 선원에서 선일종 7인거
- 백암사, 화암사, 봉암사, 정혜사, 벽송사 등 선원에서 수선인거
- 동국대학 선학과에서 강사로 후학지도
- 現 지리산 벽송사 벽송선원에서 정진중
- 불교신문 <선의 총정리> 기고중

간화정로

| 看話正路 |

간화선을 말한다

월암스님

월암스님

월암스님

월암스님

월암스님

월암스님

월암스님

월암스님

월암스님

월암스님

월암스님

월암스님

월암스님

월암스님

월암스님

월암스님

월암스님

월암스님

월암스님

월암스님